

HD현대일렉트릭, 빅테크 주문 확대… 배전기기 생산 늘린다

3분기 영업이익 2845억·이익률 24%
북미 빅테크 통합 공급계약 증가
장기계약 내 배전기기 비중 절반
청주 배전캠퍼스에 1980억 투입
연매출 2500억 증대 효과 기대

HD현대일렉트릭이 3분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배전사업 확대에 투자한다. 북미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이 전력변압기와 배전기기를 함께 공급하는 장기계약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송전기기 경쟁력을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수요로 연결하기 위한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1799억원, 영업이익 2845억 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5%, 15.1% 증가한 규모로 영업이익률은 24.1%다.

이번 실적에서는 배전기기와 신사업 부



HD현대일렉트릭 울산 사업장 전경.

/HD현대일렉트릭

문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산업의 배전변압기 수요와 북미 배전기기 판매가 늘고 지난해 12월 수주한 신안 안좌도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프로

젝트 매출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85.8% 증가했다. 북미 전력변압기와 중동 고압차단기에 이어 북미·국내 배전기기의 수익성도 개선됐다.

배전사업의 확대는 북미 고객들의 발주 방식 변화와 맞물려 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최근 북미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전력변압기와 배전기기를 함께 공급하는 패키지 형태의 장기계약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력변압기부터 배전변압기·배전기기까지 아우르는 통합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7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체결한 최대 1조1212억원 규모의 장기 공급 기본계약에서도 배전기기 비중은 절반에 달했다. 전력기기가 5673억원, 배전기기가 5539억원으로, 고객사의 데이터센터 건설 일정에 따라 개별 발주를 받아 2028년까지 공급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처럼 전력변압기와 배전기기를 함께 확보하려는 수요에 대응해 청주 배전캠퍼스에 198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향후 26개월간 배전기기 생

산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팩토리와 물류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생산능력을 늘린다. 투자 완료에 따른 연간 매출 증대 효과는 2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향후 매출로 이어질 수주잔고도 늘고 있다. 3분기 말 수주잔고는 88억4300만달러(약 11조7000억원)로 전 분기보다 4.2%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투자가 전력기기의 장기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기업 간 경쟁에서 일부가 뒤처지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면서 데이터센터와 전력설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전력 수요 증가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력기기 호황을 15~20년에 걸친 흐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LG화학, 미래차 소재로 유럽시장 공략

독일 자동차 부품 전시회 첫 참가
폭스바겐 제안에 국내 소재기업 유입
경량화·배터리 안전 소재 등 선배

LG화학이 고부가 미래차 소재를 앞세워 유럽 자동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차량 경량화와 배터리 안전성뿐 아니라 재활용 소재 적용과 원가 절감까지 현지 완성차업체의 요구에 맞춘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 자동차 부품 전시회(IZB) 2026’에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

IZB는 폭스바겐그룹의 공급업체 전시회에서 출발한 자동차 부품·공급사 전문 박람회로, 격년으로 열린다. 올해는 33개국 850여개 기업이 참가하며 예상 관람객은 4만명 이상이다.

LG화학은 폭스바겐그룹의 제안으로 올해 처음 참가했다. 지난 9월 양사가 미래차 모빌리티 소재 공동 개발을 위한 업



독일 ‘국제 자동차 부품 전시회(IZB) 2026’에 참가한 LG화학의 전시부스.

/LG화학

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국내 소재 기업 중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곳은 LG화학이 유일하다.

전시 품목은 유럽 완성차업체들이 주목하는 친환경·전동화·고기능·원가경쟁력 강화에 맞춰 구성했다. 금속 대체·무도장 소재 등 차량 경량화 솔루션과 사용 후 재활용 플라스틱(PCR)을 적용한 내·외장재를 선보인다. 배터리 열폭주 지연 소재와 차량용 투명도 조절 필름 소재(SGF)도 함께 소개한다.

이외에도 LG화학은 전시부스를 방문한 주요 고객사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무도장(Paintless)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과 원가 경쟁력 강화 솔루션을 소개하는 세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품 안에는 AI 도슨트를 활용한다. 관람객이 제품별 QR코드를 통해 소재의 물성과 기능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시 이후에도 고객과의 접점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로 구축한 e-Mobility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는 폭스바겐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LG화학의 기술·제품력을 인정받아 미래차 소재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LG화학은 차별화된 소재 솔루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미래 고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유한킴벌리, 흡수력 강화한 ‘화이트’ 새단장

차세대 제품 ‘올데이드라이’ 선택

유한킴벌리가 생리대의 흡수력과 누수 방지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내놓고 여성용품 브랜드 ‘화이트’를 전면 개편했다. 유한킴벌리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보송하게, 올 데이 드라이’를 새로운 브랜드 메시지로 정하고 차세대 전락 제품 ‘화이트 올데이드라이’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한킴벌리가 올해 실시한 생리대 구매 요인 조사에서는 ‘빠른 흡수력’과 ‘채지 않는 안심감’이 상위 3개 항목에 포함됐다. 회사는 소비자들이 흡수 속도뿐 아니라 사용 후 보송한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품 개발에 반영했다.

개발 과정에서는 시제품 약 30만개를 생산하고 4800건 이상의 테스트를 진행했

다. 이를 바탕으로 흡수력과 착용감, 사용 편의성 등을 개선했다.

신제품은 중앙 편칭홀과 고밀도 흡수층을 결합한 이중 흡수 구조와 360도 샘 방지선을 적용했다. 유한킴벌리는 자체 시험 결과 1초 만에 흡수하고 최대 4시간 동안 보송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화이트는 올데이드라이를 제로필, 스테이플과 함께 차세대 전락 제품으로 육성해 젊은 소비자층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한킴벌리 화이트 담당자는 “화이트 고유의 흡수 기술력과 축적된 고객 경험을 집약해 화이트 올데이드라이를 출시했다”며 “신제품을 필드로 여성들이 생리 중에도 자신의 일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한화오션, 고선가 선박 효과에 실적 호조

3분기 영업이익 68% 급증·특수선 성장

한화오션이 고가에 수주한 선박의 매출 반영 확대에 힘입어 3분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화오션은 27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4139억원, 영업이익 48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9%, 67.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12조670억원, 영업이익은 1조6629억원으로 각각 27.6%, 80.7% 늘었다.

실적 개선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과거 높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의 건조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잠수함과 수상함 등 특수선 사업에서도 안정적인 공정 진행이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반면 전분기 대비 매출은 37.3%, 영업이익은 34.0% 감소했다. 2분기 해양 프로젝트의 매출을 인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인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하계휴가와 추석 연휴로 조립일수가 줄어든 데다 환율 영향도 반영됐다.

4분기에는 일시타결금과 연간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이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

용할 전망이다. 다만 한화오션은 지난 6월부터 한계치를 확대해 환위험 노출 규모를 줄인 만큼 향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영향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선사업부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과 컨테이너선의 건조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선가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매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24년 이후 수주한 고수익 프로젝트의 매출 반영 확대와 원가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선사업부는 장보고-III Batch-II 2번함과 울산급 Batch-III 5·6번함의 공정을 앞당겨 매출 확대를 추진한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SK스피드메이트, 통합 차량관리 서비스 개시

‘THE 정비’ 앱으로 정비이력·예약관리

SK스피드메이트가 차량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차량 관리 애플리케이션과 종합안전점검 서비스를 선보인다. SK스피드메이트는 통합 차량 관리에 플리케이션 ‘THE(더) 정비’와 ‘종합안전점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THE 정비’는 차량 점검 결과와 정비이력, 매장 예약, 멤버십 이용 등 차량 관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차량 관리 앱이다. 차량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다음 점검 및 정비 시점에 맞춰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정비소에서 진행한 정비 내역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함께 출시한 ‘종합안전점검’은 전문 정비사가 엔진오일, 배터리, 브레이크, 타이

어, 차량 하부 등 총 61개 항목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진단기를 통해 엔진과 제동, 조향 등 주요 부위의 고장코드를 확인하고 결과를 리포트로 제공한다. 타이어 상태 분석과 고장코드 설명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이해를 돕는다.

종합안전점검은 ‘THE 정비’ 앱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전국 스피드메이트 180여개 매장에서 우선 운영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앱 출시를 기념해 연말까지 무료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THE 정비’ 앱 설치 후 회원가입과 차량 등록을 완료한 고객에게 종합안전점검 서비스를 1회 무료로 제공한다.

SK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고객이 차량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업그레이드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휴맥스모빌리티 AI 주차 시스템 구축

이대서울병원 주차 편의 개선

휴맥스모빌리티가 인공지능(AI) 기반 주차 시스템을 대형병원에 적용하며 피지컬 AI 사업 확대에 나섰다. 주차장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차량 흐름에 따라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과 보호자의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휴맥스모빌리티의 주차 인프라·운영 자회사 하이파킹은 서울 강서구 마곡 이대서울병원 주차장에 AI 기반 스마트 영상 유도 시스템 ‘에이아 이파스(Ai-PAS)’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이파킹은 이번 시스템 구축에 AI 카메라 370여대와 스마트 전광판 80개, 차량번호 인식(LPR) 카메라 20여대를 투입했다. AI 카메라가 주차장 내 차량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 AI 서버가 혼잡도와 이동 흐름을 분석한다.

/양성운 기자 ysw@